

충남도, 국비확보 ‘총력’

기재부에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지원 요청

충남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21일 재정당국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이필영 행정부지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사업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편성 운영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기재부는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이 공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각 시·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8년 만



에 개편해 충남을 찾았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충남형 뉴딜사업’ 등 15개 사업 608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충남 군비행장 민항 건설(15억 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91억 원) △충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5억 원) △국도 77호 고남~창기 구간 확장(150억 원) △차량용 만도체 기능 안전 및 신뢰성 구축(30

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11억 원)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5507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5개 사업 총 5534억 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3억 원) △충청유교 문화 권 관광개발(161억 원) 등의 반영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선도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50억 원)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30억 원) 등도 건의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계별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현안사업은 6~8월 기재부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순진 기자

당진시,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2012년 첫 지정...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

당진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 통과해 2023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평생학습 기반(조직·예산·인력 등)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지역의 여건·특성·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4년 이상 도래한 도시를 대상으로 3년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운영 및 성과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유와 전파에 대한 노력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공간 플랫폼 확장 노력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분회 평생학습과장은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을 더욱 확장해 펼쳐나가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국제교육도시 연합(IAEC), 유네스코글로벌학습도시(GNLC)의 회원도시로서 활발히 활동을 왔으며,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비장애인인과 장애인인 더불어 학습하는 시민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가금현 기자

서산시, 대산항 항로개설 및 선박 확보 등 활성화 총력

서산시 2020년 대산항 이용기업 총 17개사에 약 8억 1천만원 인센티브 지급

서산시가 충남도 내 유일 컨테이너 항만인 서산 대산항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해 사상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120,560TEU) 달성에 기여한 서산 대산항 이용 기업들에 총 8억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수출화주·포워더 3

개사, 수입화주·포워더 8개사, 선사 6개사 등 총 17개사로 컨테이너 운송 실적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4월 ‘서산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새로운 인센티브 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충청권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소 수출입 화

주(또는 포워더)에게 1TEU당 최대 2만원(수출은 1,000TEU 미만 취급화주 대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게는 동남아항로 2억원, 중국항로는 1억원을, 기존 정기항로에서 기항지를 확대하는 선사에게는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항만 하역능력 향상을 위

한 하역사 지원금도 신설했으며,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크루즈운행사 지원금도 기존 1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동량부터는 새로운 지급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산항 이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해 서산 대산항이 사상 최대 물동량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선박량, 하역능력 제고, 항로 개선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산항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진 기자

청주시,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 대해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격)증명서 1부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후 지원 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릎 관절증으로 거동불편과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형태 기자

괴산군, 평생학습도시로의 ‘첫걸음’

치유활동가 양성과정 학습자 모집

충북 괴산군이 이달 31일 치유활동가(노인심리상담사) 양성을 시작으로 함께 나눔과 행복이 함께하는 괴산군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다.

군에 따르면, 치유활동가 양성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노인 관련분야 전문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치유활동가 양성과정 학습자 모집은 이달 26일까지이며, 괴산군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초급과정은 이달 31일부터 7월 8일(매주 월, 목)까지 12회로 운영되며, 중급과정은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매주 목) 12회로 운영된다. 군은 치유활동가 양성과정 중·중급을 모두 수료한 자에 한해 10월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유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고령화 등 변화에 맞춘 평생교육사업을 펼쳐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항선봉 예산군수가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천년희망 프로젝트 제4회 모범 자치단체장 시상식’에서 ‘행정 리더십 분야’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범 자치단체장 시상식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도전을 기본 모

토로 행정리더십 분야에 대해 탁월한 업적과 영향력을 발휘한 자랑스러운 자치단체장을 선정하고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항선봉 군수는 “그동안 산업형 관광도시 완성을 목표로 주요 4대 사업 추진은 물론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섬김 행정과 적극 행정을 통해 모든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용관 기자

단양호 달맞이길 21일 개통, 수변관광 활성화 기대

대한민국 관광1번지 단양군의 ‘단양호 달맞이길’이 21일 개통됨에 따라 단양 수변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한강 줄기 따라 천혜의 절경과 달맞 단양을 체험할 수 있는 단양호 달맞이길은 사업비 53억 원을 들여 단양역~단양읍 노동리까지 2.8km 구간 옛 국도를 이용해 탐방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했다.

충북도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 별다른 동화마을, 북벽지구 테마공원 등과 함께 군의 체류형 관광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이번 단양호 달맞이길의 본격 개통으로 수중보 건설로 답수화된 단양호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새롭게 탄생하며, 가을 단풍이 절경인 가을 보밭재와 함께 지역의 대표 드라이브 코스로 사계절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을 수상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한 단양군은 시루섬 생태공원 진입교량, 상진·시루섬 나루,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등 수변관광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업들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2019년 단양 도심을 운항하는 유

람선을 띄운데 이어 단양읍 생태체육공원에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별곡리 계류장을 조성하는 등 군은 수상관광 활성화 및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옛 단양(단성면)과 신 단양(단양읍)을 잇는 색다른 힐링 관광코스의 완성을 위해 지난해 4월 하현천 대교를 선 개통하는 성과도 거뒀다.

단양읍 현천리와 단성면 소재지를 잇는 하현천대교는 총 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18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교각 5개소, 교대 2개소로 이루어진 길이 239m, 넓이 12m의 교량으로 지난해 4월 완공됐다.

단양호 달맞이길과 하현천대교의 개통으로 단양읍 도심과 인근 단성, 적성면 소재지와와 차량 운행거리가 단축됨은 물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사통팔달로 통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해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천하테마파크와 패러글라이딩 성지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단양군은 향후 수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땅길과 하늘길, 물길이 하나로 연결되는 단양만의 특색 있는 관광 형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철식 기자

창원시, 초등생 리더십 교육 ‘성료’

초등 15명 대상, 이순신체험관 탐방·창의적 거북선 만들기 체험 진행



창원시(시장 허정무)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초등생 4~6학년 자녀 15명 대상으로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2차)’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 고학년 다문화·비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확산적 사고 함양하고 초등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우리나라의 진정한 리더가 될

초등학생들에게 ▲이순신체험관 탐방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배우고 ▲거북선 만들기 체험(팀빌딩 활동)으로 리더십이 무엇인지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친구들과 함께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하며 만들어 본 활동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참여소감을 말했다.

/맹미희 기자

수원시, “필수노동자, 취약노동계층

보호·지원 위해 노력하겠다”

수원시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표들이 제131주년 노동절을 기념해 ‘수원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필수노동자, 취약노동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원시 노·사·민·정 대표들은 21일 수원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민·정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따른 현장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보건을 확보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확산과 취약노동계층 보

호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이울러 엄중벌·계층별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주도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수원시 노·사·민·정은 기념대 회에서 ‘필수노동자’ 대표 조직에 마스크 11만여 개, 손소독제 2000개를 전달했다. 박창순 SKK㈜ 조합원 등 6명이 연태영 수원시장 표창장을 수여 시정 노동조합 장인옥 등 5명이 수원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았다.

남궁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현장분과 경기남부지부장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기업), 민(시민), 정(지방정부) 대표자가 협력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김지우 기자